

## 노동부 검찰 법원조차 인정한 불법파견... 한국지엠 불법파견 마침표를 찍읍시다

 <b>고용노동부</b>	2005	한국지엠(구 GM대우) 창원공장 843명 전원 불법파견 판정
	2018	창원공장 774명 전원 불법파견 판정
	2020	부평·군산공장 945명 불법파견 판정
 <b>대법원</b>	2013	대법원 닉 라일리 형사재판 불법파견 판결
	2016	대법원 창원공장 5명 1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2020	2,3차 소송단 2심 승소 후 대법원 계류 중
 <b>검찰</b>	2006	닉 라일리 사장 검찰 기소
	2020	카허 카젬 사장 등 파견법위반으로 기소 후 재판 중

형사와 민사재판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위법행위를 확정판결했습니다.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부, 검찰, 법원에선 이미 불법파견임을 수차례 확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불법파견 인정하고, 제대로 정규직화 실시하라!

지난해 한국지엠은 금속노조로 교섭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목) 14시 한국지엠 본관에서 첫 교섭이 진행됩니다. 수년 동안 금속노조에서 불법파견 관련 교섭공문을 보냈지만,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해태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사측도 알고 금속노조 또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젬 사장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지엠 사측은 교섭에 나온 만큼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해야 합니다.

3월 3일(목) 14시 한국지엠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엠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비정규직3지회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관련 특별교섭”을 진행합니다. 비정규직과 원청의 직접교섭은 17년 비정규직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업체폐업, 계약해지로 해고하고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복직했지만 해고자 159명이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

2005년 1월 금속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으로 노동부에 한국지엠(당시 GM대우)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뿐만 아니라 대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릴레이 진정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뒤인 2005년 4월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843명 전원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 불법파견 17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삼성, 한국지엠 등 많은 기업이 법을 어기며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을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2005년, 2018년, 2020년 3차례에 걸쳐 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006년, 2020년 한국지엠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2013년, 2016년 대법원에선

### 한국지엠 전체 노동자들 힘을 모으자!

2022년을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 한국지엠 부평, 창원, 부품물류 비정규직지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해고자복직 약속 이행을 선제적으로 확보받고,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사무직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대로 어깨 겹시다. 17년 불법파견 비정규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데 힘을 모읍시다!

## 한국지엠 원청 직접교섭 경과

2019~2020 금속노조 한국지엠에 교섭요구	2021.11 한국지엠 금속노조에 교섭요청	2022.01 한국지엠 금속노조에 교섭 재요청	2022.02.17 노-사 실무교섭 교섭일정, 장소, 교섭위원 논의
2015~2018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에 직접교섭 요구	2021.05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에 직접교섭 요구	2021.12 금속노조 불법파견 교섭대책회의 새로운 집행부에서 교섭 논의하기로 함	2022.02.09 금속노조 불법파견 교섭대책 회의 교섭단 구성하여 교섭 진행 결정
			2022.03.03 14시 한국지엠내 노사 상견례 진행

# 한국지엠 불법파견 이번엔 끝내야 합니다 “금속노조, 지부, 지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상혁

산업현장에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불법파견, 위장하도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싼값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중간착취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노동을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일회용품 취급합니다. ‘대기업-청와대-고용노동부-검찰-법원’이 한 몸이 된 지배카르텔은 면죄부를 주고, 시간을 주고, 판결을 지연시키고, 이제 자회사 공세까지 펼치며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롯이 비정규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피어난 절규와 헌신적인 투쟁으로 투쟁의 깃발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 투쟁의 성과로 교섭의 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조합원들만 외롭게 투쟁하지 않게, 함께 투쟁해 불법파견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고자 합니다. 늦게나마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요청해온 것에 대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이 우려하듯이 임박한 대법원 선고와 카허카쎌 사장의 형사 재판 회부로 인한 일시적 모면책이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17년 동안 이어져 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염원과 금속노조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하나 된 단결투쟁으로 맞서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천만 촛불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나갈 것입니다.



##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김준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은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비정규직 동지들의 지치지 않는 끈질긴 투쟁 과정이 있었기에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특별교섭을 요청하면서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중대한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요청한 특별협약이 면피성이 아닌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이 담긴 교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교섭을 통해 그동안 비정규직 동지들이 받았던 길고도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십수 년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이윤을 챙겼다면 이제는 불법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모범을 만들고 지난날의 과오는 반면교사 삼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영수

15년 만에 드디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이 공식적인 교섭 자리에서 마주 앉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섭에 많은 기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라는 잘못된 구조를 끝장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섭의 성패는 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서 나옵니다. 노동조합에 힘을 모아주시요!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경학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2005년부터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사측의 불법파견 발뺌과 노노갈등 조장 및 노조파괴,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비정규직 지회로 뭉쳐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번 특별교섭에서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노조, 지부, 지회가 함께하는 투쟁으로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지 않는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허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엠자본의 부품물류폐쇄 통보에 맞서 시작된 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이제는 고용보장과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투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부품물류의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장직과 사무직이 모두 함께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이번 한국지엠과의 교섭투쟁도 금속노조의 깃발 아래 모인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교섭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